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임옥규(단국대학교)

북한의 2000년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고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아래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한 시기이다. 이 글은 2000년대 북한 단편소설에서 선군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에 주목하여 생활미(美) 속에 표현되는 감성을 분석하고 새 세대의 감수성을 살펴보았다.

북한 문학에서 선군시대 생활미는 생활 속 미적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웃음, 송고, 송엄 등으로 형상화되며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열정과 감화의 서사로 작용한다. 또한 문학 속에서 선군시대 시대정신은 심리 묘사와 소박한 인간 묘사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선군시대 문학은 풍요로움과 낙관적 미래를 제시하여 북한 주민을 독려하고 있지만 새 세대의 감수성이 표출된 문학을 살펴보면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균열된 감성이 포착된다.

이 글은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화되는 북한 체제에서의 감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모하는 시기의 북한 문학을 살펴보면 인간의 기본 정조인 희로애락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정이 표출되며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에서는 주도적 감성 이외에 내면의 표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3301).

을 통한 균열된 감성이 감지된다.

북한은 여전히 주체문학의 자장 안에 있지만 선군시대의 감성은 새로운 시대적 영향을 받는다. 이 글은 북한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주조된 감성과 새 세대의 균열된 감성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문학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선군시대, 새 세대, 감수성, 생활미,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

1. 서론

북한 문학은 북한 체제에 복무하면서 선전, 선동, 교양의 역할을 하는 것을 1차적 의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 문학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은 감성이다. 북한에서 감성은 시대와 사회 체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시대는 역사·문화·사회적 체험을 바탕으로 고유의 감성 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을 표출하는 양식으로 문화예술을 생산한다. 특정 시대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고유한 성격과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에 대한 것은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화하는 북한 체제 안에서의 북한 문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성은 개인적/간주관적/사회적 차원에 걸쳐 생성, 소통, 공유되며 육체/정신, 감각/사고/상징의 요소들을 모두 내포한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구성 및 상호작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연동되며 생성 및 변화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감성의 구조나 체계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권 3호(2010), 158쪽 참고.

북한은 체제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문학에서는 전체가 규율하는 주도적 감성 이면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는 균열된 감성이 발견된다. 북한의 주요 매체인 『조선문학』에서 북한 문학의 공적인 이데올로기 경향 외에 사적인 감수성이 포착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접하면서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 반응이 체제 유지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사회에서 공유하는 정서, 사상 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기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들이 북한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이 글은 북한 문학에서의 지배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소설에 주목하여 감성을 통한 시대정신 구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2000년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고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아래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리사회주의’²⁾를 표방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 신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가 실시되었고 남북관계에 이정표를 새긴 ‘6·15 남북 공동선언’(2000), ‘10·4 남북 정상선언’(2007) 등이 발표되었다.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심성 체계가 변화하였고, 2000년대에 등장한 새 세대는 이러한 사회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전 세대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³⁾ 이 시기에 발표된 북한 사회의

2) 유임하, “실리사회주의와 경제적 합리성—변창률의 농촌소설과 ‘영근이삭’ 읽기,” 『겨레어문학』, 41 권(2008), 551쪽.

3)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3쪽.

일상을 형상화한 단편소설은 이념과 체제 수호의 목소리 대신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새 세대의 감수성을 선보인다. 이에 관한 것은 『조선문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대 『조선문학』에는 호별(1~12호)로 2편에서 5편 정도의 단편소설이 발표되는데 수령형상 소설과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 기타 소설(과학 환상소설, 사회 등)로 대별된다. 이중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은 2000년대의 시대적 이상과 새 세대의 경험과 특성을 형상화한다.

북한 문학에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선군사상의 미학화 비판”⁴⁾에서는 2000년 전후 『조선문학』에 나타난 선군시대 문학의 성격을 작가의식과 글쓰기의 변모양상을 통해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선군혁명문학’의 사상적 강박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현실주제(소재)’ 경향에도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 양식의 다양한 변모, 변창률 소설과 리진철 시, 리동수 비평 등을 예로 들어 리얼리즘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을 논증하고 있다. “실리사회주의와 경제적 합리성”⁵⁾에서는 변창률의 농촌소설과 “영근이삭”을 통해서 선군정치와 경제합리화가 초래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 농촌사회의 변화주역인 ‘분조장’들의 열정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감화의 서사’에 주목하고 분조장과 분조원들의 오해와 불화를 봉합하는 방법으로서의 감성적 체현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감성적 체현으로는 온화하고 우회적인 교화, 감성적 발언,

4) 김성수, “선군사상의 미학화 비판—2002년 전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글쓰기의 변모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7권(2008).

5) 유임하, “실리사회주의와 경제적 합리성—변창률의 농촌소설과 ‘영근이삭’ 읽기.”

기법 차원에서의 미적 공감 환기 등을 든다. “6·15 공동선언 이후의 북한문학에 말 걸기”⁶⁾에서는 북한 문학에서 개인의 내밀한 욕망을 포착했다.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⁷⁾는 고난의 행군 이후 선군시대 북한 주민의 일상에 끼친 영향으로 조성된 공포와 강박, 혁신에 대한 열망 등을 문학작품 속에서 논한다.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담론 연구”⁸⁾는 북한 사회의 지배 기율이 균열되는 양상으로서 연애담론을 포착했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화된 주도적 감성”⁹⁾은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표출된 주된 감성으로 ‘웃음, 숭고, 숭엄’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북한이 문학예술에서의 감성을 주도하여 주민의 체제 순응과 자발적 노동력 동원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¹⁰⁾은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북한 문학예술 작품 검토, 탈북자 면접,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분석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2000년대 북한 문학을 고찰할 때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작용하는 감성적 통제에 대한 반응과 반작용으로서의 감수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시대정신 구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 체제는 문예에서의 감성을 활용하여 주민 통제의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문학의 경우 이에

6) 고인환, “6·15 공동선언 이후의 북한문학에 말 걸기,” 『실천문학』, 89(2008).

7) 오창은,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3권 2호(2010).

8)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담론 연구,” 『국제어문』, 58(2013).

9) 임옥규,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화된 주도적 감성,”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4호(2014).

10)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대한 이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제에 대한 순응이 취재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감수성의 도출이 감지된다. 이는 감성적 통제와 감수성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척 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북한 문학에서 감성, 감수성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위의 연구들에서 논의의 중심인 새 세대의 감수성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2000년대 시대정신을 분석하는 일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2000년대 『조선문학』에 게재된 사회주의 현실주의 작품 분석을 통해 선군시대 시대정신 구현과 새 세대의 감수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2000년대 새 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기’에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¹¹⁾ 사회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일한 출생 집단이라는¹²⁾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젊은 세대를 동시대의 시점에서 새 세대로 칭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선군시대 생활미(美)로서 웃음, 숭고, 숭엄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현실의 미적 현상을 창작가의 높은 사상 미학적 이상을 거쳐 재현한 현실에 대한 미적 평가이며 사람들을 숭고한 미적 정서와 감정, 미적 이상으로 교양하는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문학예술은 “현실의

11)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 4쪽.

12)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 『세대문제』, 이남석 옮김(서울: 책세상, 2013), 57쪽.

미적 파악의 가장 높은 형태”가¹³⁾ 된다. 여기에서 현실의 미는 북한 문예에서의 생활미를 일컫는다. 이렇게 북한 문예에서 중요시되는 생활미는 북한의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시기 변화는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데, 시기별로 생활미의 요소가 변모된다. 주체시대 문학에는 주체시대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생활과 연관하여 드러나는데 선군시대 문학에서는 이와는 변별되는 생활미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웃음과 낙관의 감성이 강조되고 선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숭고한 대상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정서를 발휘하게 하며 주민들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기 위해 음악, 시 등의 감성적 역할에 호소함을 알 수 있다.

선군시대 북한 소설은 작가들이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생활 속에서 문학을 찾고 선군시대 생활미를 발현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생활미란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 문예 감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선군시대 북한 감성의 특성은 선군시대에 출판된 『주체의 미학』¹⁴⁾의 범주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실의 미적 특성과 그 예술적 구현을 ‘아름다운 것, 숭고한 것, 영웅적인 것, 비극적인 것’으로 유형화한다. 그런데 이 미적 범주의 근거에는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북한 문예에서는 생활에 근거한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선군시대만의 변별적 특징으로서의 ‘생활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문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 리기도, 『주체의 미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14) 리기도, “제2장 현실의 미적 특성과 그 예술적 구현,” 『주체의 미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67~237쪽 참고.

<표 1> 2000년대 북한 소설 속 감성의 실증적 분류-키워드 추출

작가	장르	작품	감성 키워드	출처
김홍익	단편소설	한생의 초여름	흥분, 애원, 웃음, 환성, 행복, 설렘	조선문학 2000.1.
현승남	단편소설	미래에 살자	쾌활, 열정	조선문학 2000.2.
김명길	단편소설	5시간 40분	웃음, 그리움, 상냥함, 눈물, 고귀, 의롭고 강하고 아름다운	조선문학 2000.6.
최성진	단편소설	지워지지 않는 글	아름다운 용모, 죽음, 서러움, 고통, 불화, 질투, 싸움, 행복	조선문학 2000.7.
윤경찬	단편소설	언제	사랑, 장엄, 애국	조선문학 2000.9.
조성호	단편소설	대홍단의 아침노을	흥분, 웃음, 사랑, 황홀, 장엄	조선문학 2000.10.
김창수	단편소설	차번호 만-하나	애트, 사랑, 비장, 놀라움, 슬픔, 환희	조선문학 2000.10-11.
김유권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	황홀, 안타까움, 흥분, 고통, 불안, 풍경의 아름다움, 노여움, 슬픔, 희극적인 존재, 행복	조선문학 2001.1.
정영종	단편소설	후사경	사랑, 이쁨, 천진함, 기쁨, 흥분	조선문학 2001.1.
변창률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	의혹, 불안, 웃음, 아름답게, 고상	조선문학 2001.1.
리리순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	실망, 혼란, 웃음, 아픈 마음, 울음, 변민, 회오, 아름다운, 기쁨, 행복	조선문학 2001.3.
한정아	단편소설	여섯 번째 버드나무	기쁨, 슬픔, 행복, 고민, 그리움, 장쾌	조선문학 2001.3.
신용선	단편소설	다래나무 지팡이	소망, 회고, 기쁨, 행복, 웃음, 의혹, 안타까움, 죄책감, 노여움, 반감, 근엄, 명랑, 걱정, 눈물	조선문학 2001.4.
한웅빈	련속 단편소설	스물한 발의 ‘포성’	집단적 영웅주의, 익살, 용감	조선문학 2001.4-6.
김해성	단편소설	생활의 격류	의기소침, 환희, 장쾌, 웃음, 아름다운 미래	조선문학 2001.4.
김성희	단편소설	룡산의 메아리	황홀, 웃음, 아름다운 추억, 숭엄, 행복	조선문학 2001.4.

작가	장르	작품	감성 키워드	출처
안홍윤	단편소설	회초리	섭섭함, 노여움, 걱정	조선문학 2001.8.
윤경찬	단편소설	넓어지는 땅	수수, 환희, 승업	조선문학 2001.10.
강호진	단편소설	불타는 노을	서글픔, 사랑, 흥분, 배고픔, 시련, 웃음, 열렬	조선문학 2001.11.
최련	단편소설	따뜻한 봄	흥분, 사랑, 헌신, 아름답고 고상한 것	조선문학 2002.1.
김청수	단편소설	금강내기 바람	설레임, 기쁨, 사랑, 고귀한 것	조선문학 2002.8.
리금철	단편소설 과학환상소설	붉은 섬광	질겁, 런정, 로맨스(사랑), 우울, 믿음(고상)	조선문학 2002.9.
윤경찬	단편소설	겨울의 시내물	좌절감, 불행, 명랑, 다정, 수치, 사랑, 의지, 환희	조선문학 2002.10.
김해성	단편소설	제비	이악, 행복	조선문학 2002.11.
김홍익	단편소설	산화석	대담	조선문학 2003.3.
류민호	단편소설	해후	숙연, 웃음, 몽클, 아름답고 웅장	조선문학 2003.3.
박일명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	기쁨, 축복, 환희, 걱정	조선문학 2003.5.
박일명	단편소설	자남산은 노래한다	숭고한 사랑	조선문학 2003.6.
최영학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	우스운 일, 깨끗한 량심, 금지	조선문학 2003.6.
오광철	단편소설	대학시간	금지	조선문학 2003.78
장선홍	단편소설	강반의 달밤	아름다운 리상, 청춘, 행복한 웃음	조선문학 2003.10.
리정옥	단편소설	뢰성나무	욕망, 열정	조선문학 2003.12.
변창률	단편소설	영근이사	웃음, 아름다운 지향	조선문학 2004.1.

작가	장르	작품	감성 키워드	출처
최현	단편소설	바다를 푸르게 하라	행복, 사랑, 웃음, 장엄, 애국심	조선문학 2004.2.
김혜성	단편소설	열쇠	소박한 삶, 열정, 동정, 흥분, 사랑, 희망	조선문학 2004.4.
리희남	단편소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죄책해지기, 외로와도 슬퍼도 웃으며	조선문학 2004.5.
지인철	단편소설	들의 매력	눈물, 이악, 풍요	조선문학 2004.5.
최윤의	단편소설	림형빈 교수	뜨거운 사랑, 창조적 열정	조선문학 2004.8.
김혜영	단편소설	교정의 수삼나무	정열, 기쁨, 감격, 행복	조선문학 2004.9.
박윤	단편소설	대지의 음향	비위와 정서	조선문학 2004.10.
류정옥	단편소설	금대봉 마루	사랑, 행운, 환희, 아름다움	조선문학 2005.4.
김영선	단편소설	불길	열정, 혁신	조선문학 2005.5.
김정희	단편소설	젊어지는 교단	열정, 깨끗하고 열렬한 마음, 아름다운 교단	조선문학 2005.6.
변창률	단편소설	듣고 싶은 목소리	홍겨움, 웃음, 변민, 노력과 헌신	조선문학 2006.7.
리평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에	웃음, 기쁨, 그리움, 아름다운 인간과 겨울 풍경	조선문학 2007.10.
변창률	단편소설	우리는 약속했다	열렬하고 아름답고 굳건한 사랑	조선문학 2007.7.
량정수	단편소설	해당화는 바닷가에 핀다	자랑과 긍지, 기쁨	조선문학 2007.8.
김기범	단편소설	퇴근길에서	행복, 낭만적 필연	조선문학 2008.11.
김영선	단편소설	별들이 웃는다	웃음	조선문학 2008.10.
박경철	단편소설	이 땅은 넓다	놀라움, 애국자, 혁명적 군인정신, 모욕	조선문학 2008.10.

<표 2> 북한 미학과 감성 범주¹⁵⁾

미학 분류	관련 범주
아름다운 것	우미, 조화, 우아함, 고음, 기쁨, 즐거움, 아담, 황홀
숭고한 것	고상함, 숭엄함, 장엄함, 위대함, 고결함
영웅적인 것	용감성, 대담성, 숨은 영웅
비극적인 것	우울함, 슬픔, 비장, 고통, 무서움, 추(두려움, 끔찍함, 기괴함, 무서움), 비속, 비참, 저열, 저속
희극적인 것	풍자, 해학(골개, 유머), 경희극적인 것, 웃음, 유쾌, 익살, 쾌락, 쾌감

<표 1>은 선군시대 소설 속 감성을 실증적으로 분류한 표이다. 소설 속에 표현된 감성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감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되고 활용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시대(2000년대) 사회주의 현실주제 중심의 소설 중 50여 개를 선정하여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화된 생활미의 특징을 감성 키워드로 추출해서 정리해보았다. <표 2>는 선군시대 감성의 범주를 미학 분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과 <표 2>를 통해 선군시대 감성의 범주는 미학의 5가지 범주에 수렴되며 선군시대 감성은 웃음, 숭고, 숭엄을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이전 시대를 계승하면서도 변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와 유형화를 통해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서 감성은 생활미로서 웃음, 숭고, 숭엄을 주요하게 반복하고 강조함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00년대 평론과 주요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평론 “단편소설의 매혹과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소설의 매혹

15) 리기도, 『주체의 미학』; 단국대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민족 감성용어사전: 북한 편』(서울: 경진, 2014) 참고.

과 감동의 연속은 생활미의 표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생활미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사회 정치적 문제, 작가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작품 속에서 올바르게 형상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고 본다.

창작실천은 작가의 생활탐구가 생활정서의 탐구, 형상 묘리의 탐구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래와 열정, 로동의 희열로 충만된 주인공들의 성격미는 그대로 선군시대 인간들의 정신적 특질을 그려 보게 하며 작품의 량만적 정서를 기초지어준다.¹⁶⁾

이 글에서는 단편소설 “밝은 웃음”, “어느 일요일에”, “축복” 등을 생활미의 견지에서 분석한다. 단편소설 “밝은 웃음”(김명진, 2006.3)은 가정과 거리 직장에서의 웃음을 생활미의 견지에서 밝혀 신심과 낙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지향해나가는 인민의 정신미, 자랑찬 선군시대미를 발랄한 생활감정으로 잘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 단편소설 “어느 일요일에”(한웅빈, 2006.6)는 범상한 생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범상치 않는 사회적 문제인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는 어느 일요일도 진정한 일요일일 수 없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생활미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편소설 “축복”(최련, 2006.4)은 수령의 축복 속에 사는 삶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행복의 절정에 오른다는 생활미를 밝혔다고 평가받는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은 대중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종속시키기 위해 감성의 분출을 이끌어낸다. 북한 체제는 감성의

16) 천재규, “단편소설의 매혹과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올해 상반기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읽고,” 『조선문학』(2006.9), 30쪽.

분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 음악 등을 중요한 문화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유교에서 감성의 정치적 수단화는 감정의 감염 및 공감 개념에 기초하듯이¹⁷⁾ 북한의 감성도 이와 비슷하게 공감과 감염을 유도하며 문학에서 표현된 감성은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 승리로 이끈다.

“신문과 출판물은 사람들의 정신적 양식이거든, 내가 하루 안 뛰면
술한 사람들의 머리가 하루 굵게 된단 말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시련의 나날 집집마다 쌓은
떨어졌어도 신문과 출판물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¹⁸⁾

단편소설 “림형빈 교수”(최윤의, 2004.8)는 스승인 ‘림형빈’ 교수의 죽음으로 스승의 삶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된 ‘나’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는 과학과 시의 관계를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설명한다.

다음날 그는 나를 강좌에 불렀다.

방안에 들어서서는 나를 이윽히 보다가 그는 물었다.

“요즈음 어떤 시를 쓰오?”

나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공학을 배우면서도 짹짹 시를 쓰곤 하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사랑했소. 그러나 그 현줄에 과학을 용해

17) 정용환, “한국 감성의 개념사적 이해,” 『감성연구』, 2권(2011), 75쪽.

18) 김혜성, “제비,” 『조선문학』(2002.11), 64, 66~67쪽.

시키지 않았소. 그가 바이올린을 왜 켜는지 아요?”

“과학을 위해서요. 자, 보오. 우리가 해야 할 설계요. 이 속에도 시가 있소.”¹⁹⁾

스승은 “자기 창조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시”라고 말한다. 시는 과학자들에게 ‘창조적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단편소설 “대지의 음향”(박윤, 2004.10)은 선군정치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곡가 ‘서명준’은 민요 대신 현대음악을 선택했다가 예술가의 감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는 ‘창작의 극심한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김정일의 부름과 살핌으로 다시 곡을 창작할 수 있게 된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는 음악과 연관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리평, 2007.10)에서는 선군시대 참된 인간상을 표현하면서 숭엄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 소설에서는 선군시대 어려움을 이겨내는 요소로 일군들의 숭엄한 감정을 내세우면서 이를 복돋는 요소로 음악을 활용한다.

불타는 고지에서 군악으로 병사들의 전투사기를 올려주던 전쟁시기 군악대의 모습을 철산봉우리에도 펼쳐놓은 것이다. (……)

“기사장 동지 음악이란 이래서 훌륭한 게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패배주의는 노래를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9) 최윤의, “림형빈 교수,” 『조선문학』(2004.8), 59쪽.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련전련승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이 노래……”²⁰⁾

숭고한 것의 미학적 질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한히 높여 주고 그 실현으로 이끌어주며 미래에 지향시키는 미적 현상이며 숭고한 것의 정서적 특징은 즐거움, 희열, 황홀감 등 기쁨의 정서를 넘어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감동시키며 흥분시키는 정서적 양양”이다.²¹⁾

선군시대 숭고의 감정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총대미학에 구현된다. ‘선군’의 의미가 군인들의 혁명적 수령관과 동지애를 포함하고 있기에 숭고한 감성은 숭고한 동지애와 수령 결사관철의 정서로 흐른다. 선군시대 문학 속에 형성된 숭고, 숭엄의 감성은 대중의 정신적 높이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숭고와 숭엄의 감성은 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이끌고 시대적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을 통해 미래에 대한 신심을 이끌어낸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성된 숭고의 감성이 수령과 장군의 ‘고매한’ 사상 정서에 관계된다면 숭엄의 감성은 숭고한 대상에 대한 대중의 감정 고양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자연이나 음악 등이 매개로 작용한다. 평론 “시는 시로 되여야 한다”는 2006년 상반기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시들을 분석하면서 선군시대 주된 정서는 숭엄, 낭만적 서정이라고 평한다.

격조 높이 솟구치는 아름답고 숭엄하고 장엄한 서정, 시련을 맞받아 미래에, 확신성 있게 줄달음치는 격렬하고 랑만적인 서정, 이것이 오

20) 리평, “폭설이 내린 뒤,” 『조선문학』(2007.10), 33쪽.

21) 리기도, 『주체의 미학』, 112~113쪽.

늘 우리 선군시대의 주되는 서정이며 기상이다.²²⁾

“겨울의 시내물”(윤경찬, 2002.10)에는 절망에 빠진 영예군인을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치는 ‘옥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소설은 난관을 이겨내는 사랑과 감화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내 한생은 난관의 앞을 막아설 때마다 생활에 대한 사랑과 의지로 그것을 이겨 온 한생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었고 조국에 필요한 사람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앞으로 탐구의 먼 길을 걸어 가느라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생활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내 한생을 관통해 온 좌우명일 뿐 아니라 우리 조국의 현대사가 력사에 남긴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세상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지요.”²³⁾

단편소설 “백로떼 날아든다”(김명익, 2005.8)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감자 논농사를 성공시킨 백로소녀의 인생 성공기를 담고 있다. 단편소설 “불길”(김영선, 2005.5)은 선군시대를 맞이한 신세대의 새로운 발상과 노력에 대한 내용 전개가 중심인데 ‘나’의 ‘류은아’에 대한 호기심이 ‘신대승’과 ‘초옥’, 초옥의 어머니, 다시 신대승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은 어떤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의문으로 갈등의 고조를 겪다가 결국 그 인물의 위대함을 깨닫고 다들 감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소설은 ‘류은아’라는 신세대 인물을 통해 구세대의

22) 리동수,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조선문학』(2006.10), 72쪽.

23) 윤경찬, “겨울의 시내물,” 『조선문학』(2002.10), 68쪽.

공적을 혁신해나가는 과정을 칭송한다.

단편소설 “발걸음”(김순룡, 2005.6)은 어려운 과학연구사업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성취해나가는 이야기로 “임무는 수행이야.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군인들이야”²⁴⁾(67쪽)라는 대화 속에 주제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리평, 2007.10)에서는 선군시대 인간형으로 주인공 ‘최석’을 묘사할 때 “정확하고 빈틈없는 일군, 다재다능한 실력가형의 일군”이라고 표한다. 또한 주인공이 다른 인물을 평가할 때 ‘성급하고 건망증이 심한 1직장장 조철호, 만사에 태평스러운 7직장장 박대평, 노상 웃음기가 헤폰 탓에 도무지 실속이 있어 보이지 않는 ‘롱구선수’ 3직장장’(27쪽), ‘장황한 사람, 어딘가 푼수 없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여 소박한 인간 묘사를 통한 생활미를 구현하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통해 그들과의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폭설이 내린 뒤에”는 ‘가증스런 폭설과 눈보라’에 대한 해결책이 기사장의 노력보다 선군시대 숭엄한 군상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선군정치로 하여 더더욱 신심 드높아지고 원기왕성해지고 슬기로와
진 우리 사람들!

정녕 시련이 중대될수록 주접이 들거나 시들기는커녕 더더욱 아름다
와지는 선군시대 인간들처럼 훌륭한 인간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헌데 나는 뜻밖의 시련이 닥쳐오자 일순이나마 당황했다.

24) 김순룡, “백로떼 날아든다,” 『조선문학』(2005.8), 67쪽.

일상적인 짐작과 판단에 기초하여 산수적으로, 통계적으로 눈치기작 전안을 세웠다. 바로 그런 탓에 엄청나게도 3일이라는 시일을 빚보았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실책이다. 아니, 너무나 송엄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

최석의 뇌리 속으로는 조철호와 리성욱, 박대평과 오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직관원 그리고 사업소 안의 알고 모르는 사람들의 각이한 모습이 언뜻언뜻 다가왔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심장을 지닌 선군시대 인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최석의 넓은 가슴에 한 폭의 송엄한 군상으로 아로새겨지었다.²⁵⁾

선군시대 단편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단편소설 “인생의 한 여름에”(최치성, 2006.6)는 무역국의 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손경후’와 처장으로 일하는 ‘남태설’의 생활을 비교하여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비교한다. 단편소설 “안해의 성격”(심남, 2006.6)은 끊임없이 일거리를 찾는 진취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발랄한 성품을 지닌 아내의 생활미를 다룬다. 단편소설 “밀천”(변창률, 2006.11)은 선군시대 당 일군의 전형적 성격을 생활 세부들을 통해 흥미롭게 형상화한다. 소설의 주인공 ‘리당비서’ ‘문인숙’의 형상은 농사 밀천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일꾼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다. ‘문인숙’은 가장 큰 농사 밀천은 농사의 주인이라는 본분 자각과 솔선수범하는 농장원대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같이 호흡하고 그들을 당정책 관철로 고무 추동한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서 생활미의 바탕이 되는 웃음의 정서는 사회

25) 리평, “폭설이 내린 뒤,” 35~36쪽.

적 성격을 지닌다. 북한 문학에서 선군시대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강성대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강조되는 것은 혁명적 낙관주의이며 이 중심에는 ‘웃음의 정서’가 있다. 평론 “선군혁명시가 문학에 나래치는 웃음의 정서”에서는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 꺾어야 할 곡절의 굽이들을 몰라 웃는 웃음, 위안의 웃음도 아니다”라고 전제 한 뒤 장군이 있기에 “주체강국은 반드시 일떠선다는 불패의 신념을 안고 제 힘으로 무릉도원을 꽃 피우는 흥미며 멋진 것이다”²⁶⁾라고 설명한다. 또한 “선군혁명시가에 차 넘치는 웃음의 정서는 참된 사랑이다. 동지의 의리로 하고 배신 없는 충대로 하는 진실한 사랑이다”, “필승의 웃음”, “웃음은 장군님이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움은 웃음을 낳는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며”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선군시대 웃음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군시대 북한 소설에서는 낙관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벼꽃이 피기 시작한 들판우에 하늘의 별이라도 내려앉은 듯 나비등 불빛이 쉬임 없이 깜박거렸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스레 울려온다. 한 뿔도 못되는 키에 푸른 눈알이 툭 볼거진 들의 가수들은 기운찬 물소리와 한데 어울려 장중한 들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다.

유난한 달빛이 무르녹아 내리는 들판의 밤은 제 나름의 정서로 매혹적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허전하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 감정이 어느 날 현아가 보이지 않던 들판에서 느끼던 그런

26) 김성우,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나래치는 웃음의 정서,” 『조선문학』(2002.2), 63쪽.

감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아가 없는 들판은 막이 내린 무대처럼 쓸쓸하고 허전했었지. ……

그리고 보면 현아는 이 풍요로운 들판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처녀인가.²⁷⁾

“룡산의 메아리”(김성희, 2001.5)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사육공 처녀들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듣고 싶은 목소리”(변창률, 2006.7)는 작업총화 중 일어난 농촌 여성들의 오해와 불신이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생동한 농촌 풍경 속에서 전개된다. 이 소설은 “오로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노력과 헌신의 값 높은 무게로써만 매개 인간들의 진가를 평가할 줄 아는 선군시대 일군들의 참된 목소리를 대중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²⁸⁾로 마무리된다.

북한은 문화예술에서의 감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체제 순응과 자발적인 노동력 동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숭고와 숭엄의 감성은 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이끌고 시대적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을 통해 미래에 대한 신심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한 2000년대 북한 문학에는 새 세대가 등장하여 새로운 감수성의 형태를 선보인다.

3. 새 세대 특성 및 감수성 양상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체제 순응을 위해 문화예술에서의 감성을 활

27) 지인철, “들의 매력,” 『조선문학』(2004.5), 59쪽.

28) 변창률, “듣고 싶은 목소리,” 『조선문학』(2006.7), 6쪽.

용하여왔는데 선군시대에는 감성을 활용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양상을 선보이고 있다.²⁹⁾ 한편으로는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모하는 시기의 북한 문학을 살펴보면 인간의 기본 정조인 희로애락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정이 표출되며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양상 외에 내면의 표현을 통한 균열된 감성이 감지된다. 특히 새 세대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작품 속에서는 2000년대의 북한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키면서도 세대 간의 갈등, 영예군인을 가족으로 책임지거나 혈연이 아닌 군인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선군가정 지향, 부정적이고 개인 지향적인 세대의 등장, 정보화 시대 전문직 여성의 고민과 갈등이 표출된다.

북한은 세대 개념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약 20~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바뀌는 기간 또는 그 나이 또래에 속하는 사람들의 총체이며,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사이”³⁰⁾로 정의한다. 2000년대에 등장하는 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대를 일컬으며³¹⁾ 일련의 경제개혁을 경험하고 빈곤과 자연재해, 식량난 극복 노력의 임무가 주어진 세대이

29) 이에 대해서는 총대 사상의 미학, 선군사상에 강박된 수령문학 등으로 설명한다. 김성수, “선군과 문학,” 『북한문학의 지형도 2』(서울: 청동거울, 2009), 참고.

30)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32쪽. 대체로 4세대를 구분해왔으나, 최근에는 혁명 5세대와 6세대에 대해 언급한다(주중경,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15일).

31) 2000년대에는 북한의 세대구분을 4세대로 구분하여 혁명 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1950~1960년대 전쟁 및 전후복구와 천리마 운동 세대, 3세대는 1970~1980년대 3대 혁명소조운동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4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대로 구분한다.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 군대』(서울: 한울, 2007), 572쪽.

다. 2000년대 새 세대의 특징과 감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1) 종자로서의 청춘세대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변창률, 2001.1)은 청춘세대의 심리를 통해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장을 형상화한다. 소설 서두에는 종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농사의 기본인 종자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을 청춘세대의 인생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고투리를 내여 놓고 다니던 어릴 적부터 귀에 익히고 입에 오른 <닭은 고개> 전설은 나에게 종자란 무엇이며 종자는 왜 그리도 신성 불가침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때 일찍 깨우쳐 주었다. 한 알의 종자는 수십수백 배로 불어날 앞날을 안고 있기에 농민의 꿈이고 희망이며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생의 진리로 체험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나날이 흘러야 했다.”³²⁾

농사의 핵심 종자의 중요성은 꿈과 희망, 미래의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청춘 세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은유에 해당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찬성과 반대’라는 소재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소설의 화자인 ‘나’(20대 리창훈)는 분조장으로 선출되는데 반대표 5장이 나오고 ‘나’는 ‘혐의자’로 ‘채홍기 아바이’, ‘김숙희 아주머니’, ‘주봉실 아주머니’, ‘진출자 김송이’, ‘전분조장 차영세’ 등을 생

32) 변창률, “한 분조장의 수기,” 『조선문학』(2001.1), 68쪽.

각한다. 이들은 나와 충돌하는 일이 많았던 인물들로 나는 그들에게 혐의를 두게 된 이유를 외모와 성격 묘사로 풀어나간다.

구세대인 ‘채홍기’는 나의 아버지가 분조장이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인물로 사사건건 천리마 시대와 현 시대를 비교하여 불만을 제기한다. 화자는 채홍기 아버지의 형상을 “얼굴은 컴컴하고 미간에 새겨진 주름살은 좀처럼 펴질 줄”(68~69쪽) 모르는 ‘드덜기’라고 표현하여 신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식구들의 온갖 치다꺼리를 도맡아 해주고 노상 지각하는 ‘김숙희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키도 작고 눈, 코, 입이 모두가 자름자름하여 ‘자투리’로”(71쪽) 통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는 “재단하다 남은 쪼박지”처럼 구는 숙희 아주머니에게 과학적 이치에 맞게 책임져야 하는 벼농사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 주봉실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분조 앞에 제기되는 일체 대소사를 전부 좌지우지”(72쪽)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상수확판정에서 눈속임을 하고 콩을 심은 천수답 면적을 논벼면적으로 잘못 잡는 데 인심을 쓰는 바람에 ‘나’는 ‘울분의 급류’에 휩싸인다. ‘김송이’는 “텔레비전과 신문에 소개되고 싶어서”(74쪽) 농촌으로 진출한 처녀로 당돌하고 여무질 뿐 비조직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만 일삼는다.

이들과 갈등을 겪은 화자는 분조장이 된 후 ‘주길손 필자’라는 땅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를 거두게 된다. 채홍기는 화자가 화자의 아버지의 아들다워 찬성표를 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주봉실도 그녀의 아버지인 주길손이 1950년 전쟁 중 피살당하기 전에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땅이 버림받고 있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우리 분조원들’에서는 김숙희 아주머니의 변화를 묘사하고 김송이의 성장도 드러낸다. 또한

반대표는 밭일을 하지 못하는 애기 엄마들 중에 있었음이 밝혀진다.

“한 분조장의 수기”는 분조장과 분조원들의 갈등 양상과 화해 과정을 인물들에 대한 세세한 묘사로 진행하면서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장을 종자의 성장에 비교한다.

“땅과 산천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닭은 고개>전설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해마다 달라 저 간다. 보다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훌륭하게 완성의 경지로 달음쳐 간다.

한해가 가고 새봄이 오면 우리들은 또다시 땅에 씨앗을 묻는다. 선대의 우수성만을 닮은 좋은 종자를 어머니대지에 뿌린다. 농민의 꿈이고 희망인 그 씨앗은 해빛과 바람과 폭우를 뚫고 가을을 향하여 줄기차게 커간다. 우리 역시 인생의 터전에서 아름답드리 거목으로 성장해 간다.

나도, 나의 분조원들도……”(80쪽)

평론 “끌려드는 맛과 소설의 여운”에서는 이 소설의 매력이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어서 주인공이 자기의 ‘반대표’로 생각하였던 인물들에게서 자책을 받는 이야기로 끌고 나갔다”³³⁾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설은 반전과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청춘 세대의 심리를 통해 선군시대의 나아갈 바를 재미있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군시대 청춘 세대를 선대의 우수한 점을 물려받은 종자로 비유하여 이들이 펼쳐나갈 미래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제기한다.

2000년대 청춘 세대는 미래의 낙관적 씨앗 혹은 종자로서 존재하며

33) 리영순, “끌려드는 맛과 소설의 여운,” 『조선문학』(2001.8), 52쪽.

이들이 이전 세대와의 변별되는 점은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이겨낸다는 점이며 선대들이 물려 준 우수성을 닮아 더욱 우수한 세대로서 거듭난다는 것이다.

2) 개조 대상 혹은 개인 지향적 새 세대

2000년대 북한의 주된 관심은 선군사상 중심의 체제 유지와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이다. 북한 문학에서는 이를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현실주제의 소설들이 창작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투철한 사상에 입각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보다는 부정인물이 등장하여 개조되는 과정이 전개되거나 전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세 세대들은 탄광, 농촌 등지로 지원해나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적인 삶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포부와 지향이 일치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집안 배경이 좋아 사회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배우자들을 선호한다.³⁴⁾ 이외에도 신세대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세대의 갈등과 개인의 행복을 갈망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김혜성의 “열쇠”는 이혼을 극복하는 여인의 심리를 그려내고 있다. ‘나’는 남편이 고난의 행군 시기 모두가 신념을 지키고 조국을 지킬 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락후한 사람’, ‘불량배’였기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혼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사

34)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41쪽.

회적 비난과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 소설 속에 묘사된 남편은 ‘법적 교양’을 받고 돌아와 ‘나’와 ‘아들애’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평상시에 “쌍욕, 행패질, 손찌검” 등을 일삼던 남편이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되자 ‘나’의 아버지는 이혼을 권유한다.

나도 녀성이다. 나도 다른 녀인들처럼 살고 싶다. 그저 소박하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이 소박한 소원마저도 짓몽궂다. 희망과 기대, 꿈조차 깨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그와 살아야 하는가?

왜 결심을 못 내리는가?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아니,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정할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없게 될 아들에게 불쌍해서?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각오했고 결심도 확고하다.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³⁵⁾

사나이의 열정에 끌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나’는 이혼을 한 후 올바르게 변모된 그와 다시 새 출발을 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게 된다. 이 소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를 한 부부의 이혼과 재결합을 통해 은유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소설은 당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갈등과 공적인 욕망이 드러난다.

김교섭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산골생활을 기피하는 새

35)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2004.4), 68~69쪽.

세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소설은 ‘오필녀’가 군대에 입대하여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아들 대신 자식을 자처하며 찾아온 아들의 분대장 ‘김석’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시작한다. 그런데 ‘김석’의 여자 친구는 편지를 보내면서 “재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평양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수도를 떠나 한적한 산골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설득한다.³⁶⁾

리영환의 “버드나무”에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꿈인 청년이 아버지의 뜻대로 평양에서 농촌으로 내려가 농장원이 되고 나서 농촌 생활에 불만을 품는 내용이 전개된다.

밤이 왔다. 나는 잠들 수 없어 뒤척거렸다. 눈앞에는 지금까지의 생활이 무의미한 허물로 되어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그래도 내딛에는 이 땅을 위하여 청춘의 땀을 바친다고 자부하여 왔다.

이것이 허영이고 기만이었단 말인가? 하다면 사람은 자기의 희망에 대하여 책임질 권리가 없단 말인가? 희망 같은 건 없어도 군인정신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음악가가 되고 애국자가 된다는 건가.³⁷⁾

소설 속 부정인물 혹은 개인 지향적인 인물을 통해 2000년대 들어 북한 주민의 삶의 목표와 지향이 집단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김교섭,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조선문학』(2005.4), 62쪽.

37) 리영환, “버드나무,” 『조선문학』(2001.2), 45쪽.

3) 일상과 행복을 열망하는 새 세대 여성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는 교사, 연구사 등 전문직 여성이 등장하고 그들이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세대갈등과 남녀갈등, 일과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여성의 개인적 행복의 의미와 욕망의 문제가 표출된다.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에서는 연구사였지만 연구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유경’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소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과학연구사업이 고달프다고 하여 쉽게 살아가려고 가정에 불박혀 있거나 린접 부문에서 적당히 일하려는 적지 않는 여성들에게 교양적가치가 큰 절박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³⁸⁾고 하여 사회적 명분을 강조하지만 주인공은 연구에 지쳐 가정을 돌보는 착실한 주부를 꿈꾸기도 한다. 결국 ‘유경’이 “인생의 극한점에서 끝내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의 참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35쪽)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 행복과 공적 사명 속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최련의 “따뜻한 꿈”³⁹⁾은 열교환장치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연구사 ‘최윤경’을 중심으로 청년 연구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론 “새로운 형상세계의 탐구”에서는 이 소설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은 허황한 공상이 아니라 래일에 대한 믿음이고 그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고 헌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국의 과학기술을 최첨단 수준에 올려 세울 높고 아름다운 꿈을 간

38)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2001.3), 30쪽.

39) 최련, “따뜻한 꿈,” 『조선문학』(2002.1).

직하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다 진실하게 보여 주는 데서 의의가 있다”⁴⁰⁾고 평가한다. 그런데 소설 전반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여성 과학자의 과학적 의견이 무시당하는 모습이 전개된다.

회의장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잔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처녀가 당돌하구만.”

“속에 얼음만 가득 찬 것 같네.”

“여간 아닌데.”

(……)

윤경은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이것은 모욕이고 랭대 정도가 아닌 무시였다. 자기가 자리를 비웠던 며칠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그만큼 타격은 컸다.(55쪽)

새삼스런 이야기 같지만 누구나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설 때는 다 제 나름의 꿈이 있구 희망과 포부가 있지. 하지만 실지 그 길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해서 성공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많지 못하지. 현실은 그만큼 랭혹한 것이거든. 더욱이 녀성의 몸으로……(57쪽)

윤경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남성 연구사인 ‘리남진’이 이를 성공시키자 자괴심에 빠져 회의, 경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다. 결국 윤경은 남진의 설계도를 인정하고 남진은 윤경의 착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면서 둘은 따스한 미래를 약속하

40) 최광일, “새로운 형상세계의 탐구,” 『조선문학』(2002.1), 37쪽.

게 된다.

“바다를 푸르게 하라”에서는 인물의 자연에 대한 심리 묘사를 통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행복에 대한 개인적 의지를 형상화한다. 주인공 ‘연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연구사 ‘해송’은 정보화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된 일과 가정의 ‘2중의 짐’에 대해 생각하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제기한다.

(2중의 짐…) 해송은 속으로 뇌이였다.

(왜 그 훌륭한 녀인은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짐을 더 져야 할까.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 연경 언니는 연구사업의 실패와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 그래 그것은 그가 겪는 마음속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도 하찮은 것이야.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뭐야? 그런 여인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받을진대 대체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⁴¹⁾

여성의 행복에 대한 의미는 리희남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제기된다. 이 소설에서 화자는 ‘고난의 행군’ 시기 조국과 남편을 위해 희생한 아내의 죽음을 두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되묻는다.

안해의 죽음을 놓고 비로소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우리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 일부 사람들이 제 살궁냥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화목하던 한가정의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무엇을 위해 바쳐졌는가. 어찌하여 자기 것은 단 한 쪼박도 남겨두지 않았단

41) 최련, “바다를 푸르게 하라,” 『조선문학』(2004.2), 76쪽.

말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헌신이였는지.⁴²⁾

2000년대 북한 소설 속 새 세대 여성들은 연구사, 과학자 등의 전문직으로 등장하여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2000년대 소설에는 전문직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이 이전보다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전과 달리 갈등의 양상을 여성끼리의 갈등이 아닌 여성 대 남성 혹은 여성이 속한 사회의 문제로 전환시키고⁴³⁾ 있으며 정보화 시대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가정의 일과 개인적 행복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이 표면에 등장한다. 이는 2000년대 신세대적 사고를 지닌 여성을 등장시켜 당 정책이 주도하는 감성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적 감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경향을 지닌 신세대 작가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작가들로 김혜성, 리라순, 리연희, 최련 등을 거론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2000년대 북한 단편소설에서 선군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에 주목하여 선군시대 북한의 감성을 생활 속에서 찾고 새 세대의 감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문학의 변화를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반응 체제로서 체제 유지와 연동하는 방

42) 리희남,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2004.5), 40쪽.

43)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7권(2007), 375쪽.

식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단편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새 세대 대상을 청춘세대, 개조 대상으로서의 새 세대, 일상과 행복을 갈구하는 새 세대 여성 주체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선군시대 생활미는 생활 속 미적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형상은 숭고, 숭엄, 웃음, 낭만, 사랑 등으로 표출되며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열정을 불어넣고 감화하게 만든다. 또한 문학 속에서 심리 묘사와 생활 형상을 통한 소박한 인간 묘사를 통해 선군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선군시대 문학은 풍요로움과 낙관적 미래를 제시하여 북한 주민을 독려하고 있지만 새 세대의 감수성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균열된 감성이 포착되었다.

2000년대 북한 문학에 드러난 새 세대의 감수성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감성적 통제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파악되며 북한의 획일화된 시대정신과 변별되는 위치에 서 있다. 이 글에서 특징으로 꼽고 있는 선군시대 생활미는 미시적이고 범상한 생활상의 이야기에서 숭고미와 결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생활 속 웃음의 미학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강성대국에 진입하기 위한 선군시대만의 미의식에 해당된다. 선군시대 새 세대는 미래의 낙관적 씨앗, 종자로서 존재하면서 완벽한 존재라기보다 갈등과 화합을 거쳐 선대의 우수성을 닮아가는 세대로서 표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조대상 혹은 개인 지향적 모습을 문학 속에서 형상화하여 이 또한 북한 사회의 낙관과 비관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화되면서 여전히 주체문학의 자장 안에 있지만 선군시대의 감성은 시대적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주조된 감성

과 새 세대의 균열된 감성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문학의 변화를 살펴
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25일 / 채택: 7월 3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리광선, 『철학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리기도, 『주체의 미학』(조선사회과학학술집 85 철학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총대와 문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1~2001.7).

_____,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1.8~2009.12).

2) 신문

주종경,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15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만하임, 카를(Karl Mannheim), 『세대문제』, 이남석 옮김(서울: 책세상, 2013).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당·국가기구 군대』(서울: 한울, 2007).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북한문학의 지형도 2』(서울: 청동거울, 2009).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 군대』(서울: 한울, 2007).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2) 논문

고인환, “6·15 공동선언 이후의 북한문학에 말 걸기,” 『실천문학』, 89(2008).

- 김성수, “선군사상의 미학화 비판—2002년 전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과 글쓰기의 변모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7권(2008).
-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권 3호(2010).
- 오창은,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3권
2호(2010).
- 오테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담론 연구,” 『국제어문』, 58(2013)
- 유임하, “실리사회주의와 경제적 합리성—변창률의 농촌소설과 ‘영근이삭’ 읽
기,” 『겨레어문학』, 41권(2008).
-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
학연구』, 17권(2007).
- 임옥규,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화된 주도적 감성,”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4호(2014).
- 정용환, “한국 감성의 개념사적 이해,” 『감성연구』, 2권(2011).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2000s: the Susceptibility of a New Generation

Lim, Ok-kyu(Dandook University)

North Korea in the 1990s ‘the Marching of Tribulation’ time suffered. North Korea in the 2000s is advocating utilitarianism socialist construction of a great power. This paper is focused on North Korea, the short stories of the 2000s.

The real target of the socialist theme of the beauty of life in the short story noted. And a new generation of these novel susceptibility analysis. The beauty of living life can be found in the aesthetic phenomenon. Sensitivity to impress in life is sublime, laughter, romance, love, etc., and its related and gives the impress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e novel of the Military-oriented Age depicts a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human spirit and rustic implements. This time story is

presented by the richness and optimistic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he new generation is different to encourage payment. A new gener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eality and the cause. Almost three seeds as they are intended to dismiss or individuals advocating a modifications oriented to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Keywords: Military-oriented Age, sensitivity, susceptibility of a new generation, The beauty of life, work in reality socialism topics